

## Robert Chisholm 박사, 사무엘 상하, 세션 3

### 사무엘상 3-4장

© 2024 로버트 Chisholm 및 Ted Hildebrandt

사무엘상하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Robert Chisholm입니다. 이것이 3과, 사무엘상 3장, 주님께서 선지자를 선택하심, 사무엘상 4장, 패배, 죽음, 그리고 출발입니다.

다음 수업에서 우리는 사무엘상 3장과 4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특별한 수업에서는 두 장을 다루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나는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택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당연히 사무엘이 될 것이고, 3장의 주요 주제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백성과의 깨어진 관계를 기꺼이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이전 단원에서 말했듯이, 주님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거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을 거부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리더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일으키실 것이며, 사무엘을 통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몇 가지 긍정적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소년 사무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합니다.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 앞이나 여호와와 함께 섬기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한 엘리의 아들들과 달리 말하자면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주님의 말씀이 드물었습니다. 비전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와 장소에서 주님은 때때로 시현을 통해 선지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은 예언적인 말씀을 받았고, 때로는 그림이나 그림도 얻었는데, 당시로서는 그런 일이 흔치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자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사무엘을 선택하고 계시며 이제 사무엘은 그분의 예언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절에서 볼 수 있는 이 부정적인 상황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는 눈이 점점 약해져 앞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평소의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막 안에 밤에 아침까지 켜둔 등불이 있어 켜져 있었더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방주와 함께 그곳에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는 근처에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읽을 때 배경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연극에서 무대의 소품이 중요한 것처럼 장면을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극적으로나 문학적으로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설정이 매우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어쩌면 신학적인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설정에서 언급된 모든 바위와 나무에서 상징성을 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화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맥에서 이를 주의 깊게 검증해야 합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예는 열왕기하 1장입니다. 왕은 병이 나서 자신이 죽을지 알아보기 위해 블레셋 영토로 사자를 보냅니다.

그는 치유와 관련된 블레셋 신에 대해 묻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내려가서 사자들을 가로막고 “너희는 왜 가느냐?”고 말했습니다. 왕이 어찌하여 너를 이방 신에게로 보내느냐? 당신은 돌아가서 왕에게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썄, 그들이 돌아가자 왕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에게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묘사했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알아요. 가서 그를 잡으세요. 그를 여기로 데려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왕과 선지자 사이에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즉시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무엘서, 특히 사울의 책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왕은 한 장군, 즉 그의 군대 장교 한 명과 50명을 보냈습니다. 그 장교가 가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엘리야는 언덕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계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여기로 내려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나는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불. 그는 장교와 그의 부하 50명에게 불을 지르고 그들은 소각됩니다.

그런데 왕은 다른 관리에게 50명을 데리고 파견했는데, 이 관리는 더욱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려와 지금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제가 조금 의역을 하였는데, 열왕기하 1장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엘리야는 “나는 내려오지 아니하고 불을 너희에게 내리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불을 끄고 그 장교와 그의 부하들은 소각됩니다. 글썄, 우리는 이야기의 세 번째 패널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패널이라고 부른다.

반복되는 요소가 있는 이야기가 마지막 패널에서 클라이맥스에 이르면, 그 중 많은 부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성경에 나오는 세 개의 패널로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두 사람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다가옵니다. 세 장으로 구성된 이 이야기에서는 세 번째 장교가 무릎을 꿇고 등장합니다.

내 말은, 그는 목숨을 구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합당한 존경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엘리야에게 그와 함께 내려가서 왕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왕 대 선지자의 싸움이고 선지자는 왕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으며 왕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언덕 위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위에 있고, 경찰관은 여기 아래 있어요.

그의 탁월한 지위는 선지자로서의 그의 명성을 반영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무덤에 도착하실 때, 사방에 사망과 불결함이 가득하고, 이 사람에게서 귀신, 군대를 쫓아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는 돼지들에게로 들어갑니다.

아, 돼지들아! 모르시겠어요? 돼지가 거기 있을 것이다. 부정한 동물. 그리고 그 영들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서 바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바다는 물론 악을 상징하므로 그들은 집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설정은 매우 중요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밤이 되자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평소의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엘리가 4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사라져 가는 옛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는 결함이 있는 지도자이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결함이 있는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고 있는 곳 가까이에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 어두워도 빛은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사무엘을 통해 그의 백성을 그와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려는 사무엘과 주님의 의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기 전에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4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7장에서 사무엘은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할 것이고 그들은 4장에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패한 후 회개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사무엘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역사상 꽤 유명한 몇몇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인지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히브리어로 '히세,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고, 여호수아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기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그를 부르면 주님께 응답한 사람들의 긴 줄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내겠지만 그는 단지 어려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Eli는 그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비록 Eli조차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는 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는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엘리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가 불렀다고 생각하지만 주인에게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응답하는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엘리가 그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는 하인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돌아가서 누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는 가서 누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패널로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왕의 예를 들어 패널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패널 이야기입니다. 4개의 패널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농담을 통해 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랍비와 신부, 목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파티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시다시피, 뭐든지요.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것이 생각나지 않지만,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실 겁니다. 어린이 이야기.

세 마리의 작은 돼지. 숲염소 세 마리가 자랐습니다. 우리는 농담과 어린이 이야기의 패널 이야기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널에 실린 이야기가 반드시 허구이거나 꾸며낸 이야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그들에게 친숙한 곳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 패널로 된 이야기가 통제를 벗어나면 그들은 그것을 진저 브레드 맨처럼 리그마롤이라고 부릅니다.

패널 19에서는 진저브레드맨을 잡아먹고 비켜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끔 현실에서 이런 반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단지 사물의 본질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서 서술자는 단순한 신학자가 아닌 이야기꾼입니다.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흥미롭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있었던 반복에 대해 반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첫 번째 패널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전화를 받고 엘리에게 갑니다. 엘리는 내가 당신에게 전화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6절, 주님께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나이다 내 아들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누우세요. 패널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무감각한 사람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엘리에게 갑니다. 아니요. 7절은 우리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에 엘리의 아들들에게 사용되었다는 의미에서 주님을 아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주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직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이런 종류의 환상을 경험한 적이 없었고, 아직 선지자 직분을 말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는 단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나이다 그러다가 엘리는 깨달았습니다.

엘리가 여기에 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엘리에게도 흔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서 누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가서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세번째 패널입니다. 이제 네 번째 패널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거기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이라 부르시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나는 사무엘에 대한 권위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여기서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엘리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듣고 이 음성을 들으면 즉시 엘리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 엘리는 사무엘의 삶에서 실제로 권위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님은 그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듣는 자마다 귀를 울리게 할 일을 행하리니 그 때에는 내가 엘리의 가족을 향하여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하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계시하신 것과 동일한 진리를 사무엘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2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람과 동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2장에서 그가 알고 있는 죄 때문에 그의 가족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NIV는 이 시점에서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멸시하게 만들었고 그는 그들을 제지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최고의 독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는 다르게 읽힌 다른 본문 증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NIV 1984를 읽고 있는 것이고, NIV 11로 가면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ESV도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텍스트 전송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있는 텍스트, 텍스트 비판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NIV 84가 아마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아들들은 스스로를 경멸할 만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구문이 독특하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독특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일어난 일은 이상하게도 그들이 스스로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Elohim)과 매우 유사합니다.

같은 글자가 있어서 여기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일부 주석가들과 나는 그 말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계속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경스러워 보였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변경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그렇게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끔 그랬어요. 그러나 원문을 유지하는 다른 본문 증인들 덕분에 그들이 한 일이 훨씬 더 강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욕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에는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표시가 없지만, 그들이 모든 의도와 목적을 위해 그들의 행동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주하는 것 같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사나 예물로는 영원히 속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아주 아주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읽은 2장 29절로 돌아가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처소를 위하여 규정한 나의 제사와 예물을 너희가 어찌하여 멸시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예물의 좋은 부분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함으로써 나보다 너희 아들을 더 귀히 여기느냐? 당신은 고기를 훔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져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와 제사에 대하여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듯이 때로는 처벌이 범죄에 적합합니다.

그러므로 엘리 집의 죄가 결코 제사나 제사로 속죄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적절한 일입니다. 너희가 내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려 하여도 너희는 받지 아니할 것인즉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애쓰더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멸시하던 너희 집의 제물과 예물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그 환상을 엘리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서 전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이다. 그러나 엘리는 그를 불러서 '내 아들 사무엘아'라고 말했다. 사무엘이 대답하되 나는 항상 순종하는 종이니이다

그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가 물었다. 나에게 그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숨기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엄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기본적으로 사무엘에 대해 저주를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게 하라. 그러므로 엘리는 주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중재하리요? 그리고 저는 엘리가 깨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중재할 수 없고, 내가 호소할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주님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매우 비극적입니다. 여기 주님을 섬긴 이 노인이 있는데, 거의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주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을 넘겨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는 예언에 관한 특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그들의 생각 속에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것이라는 조건부 예언을

위한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무조건적인 선언을 했을 때, 그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단을 기억하십시오. 원래 단은 남쪽 아래에 있었지만 그 단 사람들은 북쪽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때때로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맨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내려가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북에서 남까지 온 땅이 사무엘이 여호와와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거나 확증을 받았음을 인정하였더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예언은 성취되고 있으며 온 이스라엘은 그가 주님의 선지자로 확인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실로에 나타나셨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이 장의 시작부터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세요.

그 당시에는 주님의 말씀이 귀했습니다. 비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장의 끝 부분에서 주님은 새로 회복된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가 될 사무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에게 나타나시며, 그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또 선지자가 생겼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상황은 나아지기 전에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나서 초점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4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장의 제목을 패배, 죽음, 출발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죽을 것이고, 방주는 떠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과 엘리와 그의 아들들 사이의 대조를 따라가면 4장의 주요 주제가 3장과 짝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2장에서 다시 주어진 여호와의 심판의 명령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그 길에 비극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전 수업에서 조건부 예언, 암묵적으로 조건부인 조건부 예언에 대해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선포되고 사무엘을 통해 반복되고 반복된 예언은 심판의 법령이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선언이었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성취의 시작, 앞서 언급한 표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은 엄청난 비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며,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 군대를 배치했고, 전투가 확산되자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장에서 약 4,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실로에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주님과 관계가 긴장됐을 수도 있고, 그분과 멀어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옮겨와서 우리와 함께 가며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방주를 이곳으로 운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기억 속에는 사람들이 방주를 짊어지고 성을 돌며 기적적인 큰 승리를

경험했을 때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일이 기억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민수기에서 그들이 패하고 방주가 없었던 한 전투를 기억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방주가 일종의 행운의 부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그것을 이상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궤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것을 주님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거의 아이돌 수준이네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유형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전쟁에 끌고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4절),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궤 위 지성소에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에 거기 보좌에 좌정하시느니라.

그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훼 왕을 데리고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라 이것은 우리가 이미 본 것에 비추어 볼 때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궤가 승리를 보장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와 함께 바로 거기 서 있는 홉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죽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이 하루 안에 죽을 것이라고 엘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주와 함께 그곳에 있다는 사실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나는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이 땅이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니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들은 법궤가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땅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 진영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때때로 이스라엘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와 법궤가 진영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신이 진영에 들어왔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이 방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목하세요? 그들은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마치 방주가 신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매우 이교적인 사고방식이고, 나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신이 진영에 들어왔다고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곤경에 빠졌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누가 이 강력한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그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인들을 친 신들이다.

힘내라, 블레셋 사람들아.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다. 남자가 되어 싸워라.

이봐, 여기에서 그들에게 용기에 대해 A를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이 신에 맞서 싸우면서 여기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고 전투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절에서 그들은 처음에 신이 진영에 들어왔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는 이 강력한 신들의 손길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인들을 친 신들이다. 그들은 복수의 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모순이 있는 건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 가면 때때로 전투 기록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전투를 이끌 주요 신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것이 그가 유일한 신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참여하는 다른 신들이 있을 것이므로 저는 바빌론의 홍수 이야기인 길가메시 서사시를 설명하기 위해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수집했습니다.

아다드(Adad)가 주요 판사입니다. 아다드는 폭풍의 신이다.

그는 바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주심판으로 오지만 다른 신성한 인물들도 동행합니다. 아다드가 심판하러 올 때, 그와 동행하는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파라오 람세스 2세(Rams II)는 카데시(Kadesh)에서 꽤 유명한 전투에서 히타이트와 싸웠으며, 그는 자신의 성공을 아문(Amun) 신 덕분에 돌렸습니다. 아문(Amun) 신은 그가 히타이트족을 물리칠 수 있게 해준 신이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기껏해야 무승부 였지만 고대 근동의 선전에서는 전투에서의 승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승리에서 그녀의 역할에 대해 여신 Sakhmet을 칭찬합니다. 그녀의 왕관에서 불이 나와 그의 적들을 태워버렸습니다. 따라서 아문이 주요 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싸우고 있는 두 신이 있습니다.

아시리아 연대기에서 왕들은 때때로 전투에서 도움을 준 두 명 이상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투쿨티 니누르타 1세(Tukulti Ninurta I)라는 이름의 왕은 아슈르(Ashur)와 엔릴(Enlil)이 그의 적들에게 불과 화염 화살을 보냈다고 자랑했지만, 다른 신들도 싸우고 있습니다. Anu, Sin, Adad, Shamash, Ninurta, Ishtar, 그들은 모두 전투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주요 신을 가질 수 있지만 관련된 다른 신들도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들은 아슈르가 전투에서 그들을 도왔다고 말하고 묘사합니다. Ashur가 군대 위에 있는 일종의 날개 달린 인물임을 보여주는 부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의 두 왕인 사르곤 2세와 아슈르바니팔은 둘 다 아다드 역시 그들을 위해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사사기 5장에는 주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기 위해 폭풍 가운데 오시는데, 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다고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선지적인 사고에서는 별들이 주님의 천상 모임과 연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말하자면 주님의 천사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은 바로 고대 근동 세계의 본거지입니다. 신이 진영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 한 신을 이 방주의 형태로 여기로 데려왔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다른 신들이 관여하고 있는데, 이 신은 혼자 싸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신성한 영역의 동맹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싸웠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하여, 모두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습니다. 살육은 정말 대단했고, 그런데 메아리가 들립니다. 히브리어 서술에서 많은 경우 이러한 메아리, 즉 앞서 나타난 단어나 문구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향은 그것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히브리어로 매우 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아주 좋았나요? 그것은 엘리의 아들들의 죄였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바로 여기 문맥에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메아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살육은, 똑같아, 매우 크며, 이스라엘은 30,000피트의 군사를 잃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의 궤를 빼앗기도록 허락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서술자의 방식입니다. 이 비극이 일어난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계획이 엘리의 아들들을 멸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엘리에게 이것이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날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경기장 밖으로 데려가기로 작정하셨으며 만약 그로 인해 궤가 빼앗기게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닌 주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로서 그렇습니다. 임재는 법궤로 표현되지만 법궤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는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를 통제할 수 없으며 소위 방주 이야기가 펼쳐지는 5장과 6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방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시작 부분입니다. 그러나 방주 이야기가 끝날 무렵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이스라엘 영토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법궤를 통제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통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이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날 베냐민 사람 하나가 전령이 되어 싸움터에서 도망쳐 옷이 찢기고 머리에 흙이 묻은 채 실로로 갔습니다. 자, 이것들은 우리가 졌다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그의 옷이 찢어지고 그의 머리에 먼지가 묻은 것을 보는 순간 그를 보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애도 중입니다. 이것은 애도하는 몸짓입니다.

그가 도착하니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처음 봤을 때 그가 하고 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수동적입니다.

그는 길가 의자에 앉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Eli를 조금 봅니다. 내 생각에 그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걱정하지만, 불행하게도 자신의 가족의 행동이 이 일을 초래했기 때문에 좀 비극적입니다. 그는 일찍부터 아들들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마을에 들어갔을 때 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실제로 그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즉시 아는 것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리려고 마을로 들어왔을 때, 온 마을이 그 사람의 머리에 먼지가 묻고 옷이 찢어진 것을 보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서 한 마디도 듣기도 전에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 소란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란이 애도라면 아뇨, 축하와 애도의 차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는 단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좋지 않다고 느꼈지만 아직 거기 까지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급히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98세였는데 그 사람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찢어진 옷에 있는 먼지를 볼 수 없습니다.

그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듣는 것뿐이다. 그는 엘리에게 내가 방금 전선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바로 오늘 그것으로부터 도망쳤다.

엘리가 물었다. “내 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소식을 전한 사람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그 군대는 큰 손실을 입었느니라.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듯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징조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홉니와 비느하스는 그 일이 있던 날에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반응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궤를 언급하자 엘리는 문 곁에 있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충격이었고 그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는 늙고 비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방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궤를 더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걸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는 말하자면 그의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을 염려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부하면 그냥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지만 자기 아들들이 무엇인지, 그들이 성소를 어떻게 범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이 모든 일을 하도록 내버려둔다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 그토록 관심을 가졌을까요? 매우 비극적이고 매우 슬프다. 여기에는 일종의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그의 며느리이자 그의 아들 중 하나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막에서 여자들과 놀고 있던 이 아들들 중 적어도 한 명은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다른 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느하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라. 그녀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너무 벅찬 일이고, 출산만 하면 되고, 출산을 하게 되지만 진통을 겪게 됩니다.

죽어갈 때에 시중드는 여인들이 이르되 낙심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녀는 그것에 반응하지도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에 그녀는 그 말을 들은 것 같지만 어떤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소년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가보드(Ichabod) 또는 이카보드(Ichabod)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카보드 크레인(Ichabod Crane)의

슬리피 할로우(Sleepy Hollow)에게서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래된 곳입니다.

그녀는 소년의 이름을 이카보드(Ichabod) 또는 카보드(qabod) 라고 지었는데, 이는 아마도 영광이 없다는 뜻이거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는 의미일 것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이가보드라는 이름의 저 부분을 보세요.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E는 그것에 대한 접두사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자기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궤로 대표되는 여호와와 영광과 그분의 백성 가운데 그분의 임재가 사라졌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법과 그녀의 남편.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영광을 방주와 연관시킵니다.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방주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매우 슬프지만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구절과 우리가 첫 번째 수업에서 사무엘상에서 살펴본 첫 번째 구절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아이의 탄생과 어머니의 말을 듣게 됩니다.

자, 돌아가자.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그 아들을 주셨고 그녀는 기뻐서 울부짖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여호와께서 그녀를 위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특별한 경우에는 엘리와 그의 아들 편에서 내내 대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한나처럼 어머니가 주님께 아이를 구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이 아이는 법궤를 빼앗김으로 여호와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매우 큰 비극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특별한 이야기는 모두 죽음에 관한 것인 반면, 한나의 이야기는 모두 새로운 삶과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기서 바닥을 쳤고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좋아요, 당신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읽는다면 이 시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다음 몇 장에서 어떻게 방주가 블레셋 영토로 내려가는지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야훼를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격파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죽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패배하지 않으셨고 5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에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일과 아무 관계도 맺기를 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주를 떠나 본토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은 이 장을 통해 이야기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는 주변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7장에서 다시 현장으로 튀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장에서 보게 될 것은 이스라엘이 여기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들은 방주를 잃어버렸어요. 방주가 돌아오고 우리는 7장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강의에서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사무엘상하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Robert Chisholm입니다. 이것이 3과, 사무엘상 3장, 주님께서 선지자를 선택하심, 사무엘상 4장, 패배, 죽음, 그리고 출발입니다.